

# 否定素 ‘아니’와 ‘못’의 意味

李 敬 雨

## I. 序

否定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論義는 통사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국어의 否定素로는 ‘아니’와 ‘못’이 있다. 이 두 가지 否定素는 文章에서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한 型은 동사 앞에 나타나고 또 한 型은 동사 뒤에 나타난다.

- (1) 그 꽃은 안 예쁘다.
- (2) 그 꽃은 예쁘지 않다.
- (3) 영화는 못 간다
- (4) 영화는 가지 못한다.

(1), (3)은 否定素 ‘아니’와 ‘못’이 동사 앞에 나타나고 (2), (4)는 동사 뒤에 나타난다. 이것들을 전자를 短形 否定文, 후자를 長形 否定文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否定素 ‘아니’의 경우에는 話者が 聽者の 명제의 참에 대해서 강하게 믿는 것을 부정할 때에 쓰이는 ‘-것’ 뒤에도 쓰이나 ‘못’은 ‘-것’에는 쓰이지 못한다.

- (5) 영화는 간 것이 아니다.
- (6) \*영화는 간 것이 못이다.

이제까지 부정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으나 否定素 ‘아니’와 ‘못’의 意味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sup>1)</sup> 이 두가지 부정표지는 다른 共起制約

1) 최현배(1946)는 ‘아니하다’를 不爲로 ‘못하다’를 不能으로 보았으며, 성광수(1971)는 ‘아니’가 포함된 文이 行爲나 形容(狀態)에 대한 부정이고, ‘못’이 포함된 文을 能力에 대한 否定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최현배(1946)의 생각과 같다. 남풍현(1976)은 15세기 국어의

을 갖는다. ‘아니’는 거의 모든 서술어(동사, 형용사)에 다 쓰일 수 있으나 ‘못’은 제약이 있다. 短形 否定文에서 ‘아니’는 거의 모든 동사와 다같이 쓰일 수 있으나 ‘못’은 상태동사(stative verb), 과정동사(process verb)<sup>2)</sup>와는 쓰이지 못한다.

- (7) a. 나는 안 춥다.  
b. \*나는 못 춥다.
- (8) a. 그녀는 안 변했다.  
b. \*그녀는 못 변했다.
- (9) a. 영희는 집에 안 간다.  
b. 영희는 집에 못 간다.
- (10) a. 그 공은 이 구멍에 안 들어간다.  
b. 그 공은 이 구멍에 못 들어간다.

(7)에서는 유기체의 감각을 뜻하는 상태동사가 쓰였고 (8)에서는 ‘변하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과정동사가 쓰였으며 이때는 否定素 ‘못’이 쓰일 수 없다. (9)와 (10)에서는 ‘가다’ ‘들어가다’ 등의 동작동사가 쓰였고 이때는 ‘못’이 쓰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정법의 논의에서는 대부분이 분포적인 차이는 고찰이 되었으나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백히 하지 못했다. 분포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sup>3)</sup>

Ⅱ章과 Ⅲ章에서는 각기 ‘아니’와 ‘못’의 분포를 살펴면서 각각의 의미특성을 살펴 보기로 하자.

## Ⅱ. ‘아니’의 意味

2.1. 否定素 ‘아니’는 거의 모든 동사에 쓰일 수 있으나 특히 동작동사 중에서 動作主가 有情物인 부정문에서는 동작주의 意志·意圖 등을 나타내는

부정사 중에서 ‘아니’는 순수한 부정사이고 ‘못’은 가능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으로 보았다. 김동식(1980)은 ‘아니’는 객관부정과 자의부정으로 ‘못’은 他意부정과 평가부정으로 보았으나 객관부정과 자의부정이 될 때의 제약조건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말하는 이가 그때 그때의 의미체에 맞게 하고, 듣는 이도 역시 그에 맞게 해석한다고 하였다. 他意부정은 의지나 의도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을 뜻했는데, 이때 행위가 결여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2) 동작동사, 과정동사, 상태동사의 분류는 Chafe(1970: 95-104)를 참조했다.

3) Bolinger(1977: 1-20)에서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고 했는데 ‘못’과 ‘아니’는 형태 뿐만 아니라 분포에서도 차이가 난다.

意圖否定(內的인 부정)이 된다. 다음의 예문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 (11) a.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b.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려고 눈을 감았다.  
 (12) a.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일찍 출발했다.  
 b. \*학교에 늦지 못하려고 일찍 출발했다.  
 (13) a. 나, 그 일 안 할래  
 b. \*나, 그 일 못 할래

‘—으려고’와 같이 주체의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는 (11a) (12a)와 같이 ‘아니’와 쓰일 수 있으나 (11b), (12b)와 같이 ‘못’과는 쓰일 수 없다. ‘—르래’도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13a)에서와 같이 ‘아니’와는 쓰일 수 있으나 (13b)와 같이 ‘못’과는 쓰일 수 없다.

- (14) a. 나는 그 여자의 대용품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것 뿐이에요.  
 b. \*나는 그 여자의 대용품이 되고 싶지는 못하다는 것 뿐이에요.  
 (15) a. 나는 너를 놓고 싶지는 않아.  
 b. \*나는 너를 놓고 싶지는 못해.  
 (16) a. 마음 놓고 그림에 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버리고 싶지 않다.  
 b. \*마음 놓고 그림에 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버리고 싶지 못하다.  
 (17) a. 오빠, 그림 집에 안 갈테예요?  
 b. \*오빠, 그림 집에 못 갈테예요?

소망이나 意志, 意圖를 나타내는 ‘—고 싶다’ 구문의 부정에 (14a), (15a) (16a)와 같이 ‘아니’는 쓰일 수 있으나 (14b), (15b), (16b)와 같이 ‘못’은 쓰일 수 없다. (17)에서도 오빠가 집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오빠의 의지나 의사를 묻는 질문이므로 (17a)와 같이 ‘아니’는 쓰일 수 있으나 (17b)와 같이 ‘못’은 쓰일 수 없다.

또한 ‘공감이 가다, 마음이 내키다, 마음에 들다’ 등의 화자의 意圖・意志 또는 意思등이 포함된 속어에는 부정소 ‘못’이 쓰일 수 없고 ‘아니’만이 쓰인다.

- (18) a. 마음이 안 내킨다  
 b. \*마음이 못 내킨다  
 (19) a. 공감이 안 간다.

b. \*공감이 못 간다.

(20) a. 마음에 안 든다

b. \*마음에 못 든다

이와 같은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니’ 부정소는 동작동사 중 動作主가 有情物인 경우에는 動作主의 의지나 의도 등을 나타내는 의도부정 즉 內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 된다.

2.2. 否定素 ‘아니’와 같이 쓰이는 動作動詞 중에서 動作主가 無情物이거나, 有情物의 일부일때와, 상태동사, 과정동사와 같이 쓰일 때는 단순히 행위의 부정을 뜻하는 단순 부정이 된다. 먼저 동작동사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21) 그 공은 이 구멍에 안 들어간다.

(22) 손이 틈에 끼여서 안 빠진다.

(21)의 ‘들어가다’와 (22)의 ‘빠지다’는 의도를 가지고 行할 수 있는 動作動詞이나 주어가 無情物인 ‘공’과 有情物의 일부분인 ‘손’으로서 의지나 의도를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때의 부정은 의도부정이 될 수 없고 단순히 行爲의 否定을 뜻하는 단순부정이 된다. 상태동사와 과정동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23) 영화는 안 예쁘다

(24) 그 여자는 안 변했다

(23)의 ‘예쁘다’는 상태동사이고 (24)의 ‘변하다’는 과정동사이다. 위 예문에서 주어는 모두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주어가 의도를 가질 수 있더라도 상태·과정 동사에서는 그 의미체에 주체의 의도성을 가질 수 없다. 상태를 말하는 것이나 상태나 조건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주체의 의도적인 행동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정문이 아닐 때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어미는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 이를 나타낸다.

(25) 그는 공부하 {려고, 고자} 학교에 갔다.

(26) \*영화는 예쁘 {려고, 고자} 열심히 했다.

(27) \*그 여자는 변하 {려고, 고자} 마음 먹었다.

이처럼 의도나 목적을 나타낼 수 없는 동사들인 ‘예쁘다, 변하다’ 등은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쓰이든 주체의 의도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소 ‘아니’가 쓰인 부정문도 의도부정(內的인 부정)의 뜻을 갖지 못한다.

2.3. 否定素 ‘아니’는 거의 모든 동사에 다 쓰인다고 했는데 ‘아니’가 쓰일 수 없는 동사가 있다.

(28) a. \*너는 왜 그 일을 안 견디고 나왔니?

b. 너는 왜 그 일을 못 견디고 나왔니?

(29) a. \*그는 참다 안해 웃음을 터뜨렸다.

b. 그는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견디다, 참다’ 등의 동사들은 그 동사 자체가 動作主의 의지나 의도등이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動作主의 의지나 의도를 뜻하는 ‘아니’ 부정소는 쓰이지 못한다. (29b)와 같이 ‘참다 못해’라는 부사는 있어도 (29a)와 같은 ‘\*참다 안해’라는 부사는 없다.

否定素 ‘아니’가 쓰일 수 없는 동사들로서 또한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 있다. ‘알다,<sup>4)</sup> 깨달다, 느끼다, 깨우치다, 터득하다’ 등의 認知動詞類로서 이 認知動詞는 주체의 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의도 부정(즉, 內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을 나타내는 否定素 ‘아니’가 쓰이지 못한다.

(30) a. \*나는 그 사실을 안 알았다

b. \*나는 그 사실을 알지 않았다

(31) a. \*나는 그 사실을 안 깨달았다.

b. 나는 그 사실을 못 깨달았다

(32) a. \*나는 온기를 안 느꼈다

b. 나는 온기를 못 느꼈다

(33) a. \*나는 진리를 안 터득했다

b. 나는 진리를 못 터득했다

否定素 ‘아니’가 쓰이는 否定文은 ‘아니’가 動詞 앞에 오는 단형부정문이 나 ‘아니’가 동사 뒤에 오는 장형부정문에 다 쓰일 수 있는데 ‘모르다’만은 단형부정인 ‘\*안 모르다’는 쓰이지 않고 장형부정인 ‘모르지 않다’만이 가능하다. ‘모르다’와 意味가 대립되는 어휘로서 ‘알다’는 ‘아니’ 부정문에

4) “저 술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와 같은 반문에는 동사 ‘알다’에 ‘아니’ 부정소가 쓰이기도 한다.

는 쓰이지 못한다. 이것이 ‘못’ 부정에 쓰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알다’는 단형부정인 ‘\*못 알다’는 쓰이지 않으나 장형부정인 ‘알지 못하다’는 쓰인다. 이것은 ‘모르다’도 단형부정은 쓰이지 않고 장형부정만이 쓰이는 점에서 같다. ‘모르지 않다’는 의미가 ‘알다’와 같고 ‘알지 못하다’는 ‘모르다’와 같은데 둘 다 왜 장형부정만이 가능하며 ‘모르다’는 ‘못’에 의한 부정이 쓰이지 않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 Ⅲ. ‘못’의 意味

3.1. ‘못’은 ‘아니’와 함께 국어 부정문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까지 별로 밝혀진 바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먼저 보기를 들어 보자.

- (34) a. 영화는 학교에 못 갔다  
       b. 영화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35) a. \*영화는 못 변했다  
       b. \*영화는 변하지 못했다  
 (36) a. \*나는 못 춤다  
       b. \*나는 춤지 못하다

(34)에서 동사 ‘가다’는 행동성을 나타내는데 비해 (35)와 (36)의 ‘변하다, 덩다’는 상태의 變化를 뜻하는 과정성의 동사와 유기체의 감각을 뜻하는 주관성 상태동사이다. (35, 36)의 동사들은 ‘아니’ 부정문에서도 의도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앞의 예문 (11b), (12b), (13b), (14b), (15b), (16b), (17b)에서와 같이 의지나 의도 등을 나타내는 접속어미와 ‘못’은 같이 쓰이지 못하므로 ‘못’은 의지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을 알 수 있다. (34)의 동사 ‘가다’는 動作動詞로서 주체가 의도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주체의 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35), (36)에서는 行動主의 존재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行動主 없는 文章에서 行動主의 의지나 의도 등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否定素 ‘못’은 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外的인 환경(가능, 능력……)<sup>5)</sup>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즉 外的인 부정이라 할 수 있겠다. ‘못’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동작 동사

5)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못’을 능력 부정이라고 보았는데 ‘못’은 능력을 포함해서 그외의 환경이나 가능성 등 더 넓은 범위도 포괄하는 부정이다.

앞에서 쓰이는 ‘못’을 ‘아니’와 비교해 보자.

- (37) a. 꼬마가 밥을 못 먹는다  
b. 꼬마가 밥을 안 먹는다
- (38) a. 다람쥐가 구멍에서 못 나온다  
b. 다람쥐가 구멍에서 안 나온다
- (39) a.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못 먹인다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안 먹인다
- (40) a. 그는 술을 못 마신다  
b. 그는 술을 안 마신다

(37)의 두 문장은 모두 밥먹는 행위가 결여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두 문장이 同意는 아니다. 그들은 결여의 원인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 결여가 발생하는 데는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다. 동사 ‘먹다’는 동작주가 있는 동작동사이며 동작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은 동작주 자신 즉, 그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소 ‘아니’가 쓰이며 주어의 의지나 의도 등을 나타내는 의도부정 즉 내적 부정의 표지이다. 반면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작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즉 밥이 아직 덜 되었거나, 먹을 시간이 없거나, 몸이 아플때 등이다. 이 두 번째의 결여는 動作主의 의지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며 이 때는 (37a)의 표현이 쓰인다. (38b)도 動作主인 다람쥐 자신의 의지나 의도에 의해서 동작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내적인 원인을 나타낸다. 반면에 (38a)는 動作主인 다람쥐의 의지나 요구와는 관계없이, 구멍이 작다든지 등의 외부 상황 때문에 일어난다. 즉 外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법이다. (39b)에서도 젖 먹이는 행위의 결여는 動作主인 어머니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가 있는 의도 부정 즉 내적인 원인에 의한 부정이며 (39a)에서도 행위의 결여는 動作主인 어머니의 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머니에게 병이 있거나, 젖이 나오지 않는 등 外的인 환경에 의한 부정이다. (40b)에서도 술을 마시는 행위의 결여는 動作主 ‘그’의 의지나 의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40a)에서는 動作主의 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신체 조건이 술에 맞지 않는 등의 外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 보기로 하자.

- (41) a. 그 분에게는 어려워서 감히 못 여쭙겠다.
- b. \*그 분에게는 어려워서 감히 안 여쭙겠다.

- (42) a. 미처 손을 대지 못한 모양이었다.  
 b. \*미처 손을 대지 않은 모양이었다.
- (43) a. 이 곳은 군사 지역이라서 사진을 못 찍습니다  
 b. \*이 곳은 군사 지역이라서 사진을 안 찍습니다
- (44) a. 나는 늦어서 시험을 못 치뤘다  
 b. \*나는 늦어서 시험을 안 치뤘다
- (45) 너 머리 깎았니?  
 a. 시간이 없어서, 못 깎았어  
 b. \*시간이 없어서, 안 깎았어
- (46) a.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잘까봐 일부러 낮잠을 못 재운다  
 b.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잘까봐 일부러 낮잠을 안 재운다
- (47) a. \*철수가 순이의 책을 빼앗으려 했지만 순이는 철수에게 책을 못 빼앗겼다.  
 b. 철수가 순이의 책을 빼앗으려 했지만 순이는 철수에게 책을 안 빼앗겼다.
- (48) a. 나는 그 일을 마지 못해 했다  
 b. \*나는 그 일을 마지 안해 했다

(41a)에서 여쭙는 행위의 결여는 ‘감히’나 ‘어려워서’와 같은 부사 때문으로 그분의 위엄 때문에 ‘어려워서, 감히’ 같은 부사가 같이 쓰이는 것이며 이것은 주어의 의지나 의도와는 무관한 상대방에 의한 즉, 주체의 內的인 요인이 아닌 外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며 이때에는 부정소 ‘못’이 쓰인다. (42)에서의 행위의 결여도 ‘미처’와 같은 부사는 주어의 의지나 의도 등과 관계없이 시간이 없거나, 다른 사정때문이며 이때에도 外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며 부정소로는 ‘못’이 쓰인다. (43)과 같은 종류의 예문에서 성광수(1971)는 ‘못’의 의미를 금지로 보고 있으나, 사진 찍는 행위의 결여는 사진 찍고자 하는 행위자의 의지나 의도와는 무관한 군사 지역이라는 外的인 환경 때문이다. (44)에서의 시험을 치루는 행위의 결여의 원인도 주어의 의지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늦어서’라는 外部的인 요인 때문이다. (45)에서의 머리를 깎는 행위의 결여도 주체자의 의도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라는 外部的인 요인 때문이다. (46)에서의 ‘재우다’와 같은 사역동사는 주어의 의지나 의도가 포함이 되므로 ‘아니’와 ‘못’의 두 가지 부정이 모두 가능한데 (46)에서는 ‘일부러’라는 주체자의 의지나 의도를 뜻하는 부사가 쓰였으므로 (46 a)에서와 같이 부정소 ‘못’이 쓰일 수 없고 (46b)에서와 같이 주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소 ‘아니’가 쓰인다. (47)에서도 ‘—으려’ 등의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와 否定素



‘못’은 쓰일 수 없다. (48)에서와 같이 動作主의 의지나 의사가 없는데 外的인 요인 등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에 쓰이는 속어로서 ‘마지 못해’가 있다. 이때 주어의 의지나 의도가 없으므로 즉 내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마지 안해’라는 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使動詞는 주체의 의도적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의 부정을 나타내는 단순부정과 함께 의도부정 즉 內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의 뜻도 당연히 가질 수 있으나 被動詞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업히다, 매달리다’와 같이 被動詞의 能動主에 대한 행동이 있는 동사들은 부정문 형성에서 ‘아니’와 함께 ‘못’의 쓰임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외의 피동사들은 피동주의 능동주에 대한 行動性이 없기 때문에 外的인 원인에 의한 부정소 ‘못’이 쓰일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 보자.

- (49) a. 순이는 영희에게 안 업혔다  
 b. 순이는 영희에게 못 업혔다
- (50) a.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안 매달린다.  
 b.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못 매달린다
- (51) a. 범인이 안 잡혔다  
 b. \*범인이 못 잡혔다
- (52) a. 순이가 안 보인다  
 b. \*순이가 못 보인다

(49a)에서 업히는 행위의 결여는 주어인 순이의 의도나 의지로서 영희에게 업히지 않는 의도 부정을 나타내고 (49b)는 순이가 영희에게 업히지 않겠다는 의지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순이가 영희보다 더 커서 영희가 순이를 업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지 등의 外部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다. (50a)에서도 매달리는 행위의 결여는 아이들의 의사때문이며 (50b)에서의 행위의 결여는 선생님이 무섭다든지 등의 주어의 의지와는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다. 動詞 ‘매달리다, 업히다’는 능동주의 피동주에 대한 행동성이 있으나 (51), (52)에서의 동사 ‘잡히다, 보인다’는 주어의 行動性이 없으며 그러므로 주어의 능력이나 의도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때는 부정소 ‘못’이 쓰일 수 없으며 ‘아니’의 부정도 단순히 행위의 부정을 뜻하는 단순부정이 된다.

3.2.1. 否定素 ‘못’은 상태동사, 과정동사와는 같이 쓰일 수 없는데, ‘-하다’가 結合된 동사들 중에 ‘공부하다, 일하다, 노래하다, 운동하다...’ 등은 ‘못’과 같이 쓰여서 단형과 장형의 부정문을 모두 다 만들 수 있으며 ‘아니’는 의도부정 즉 내적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고 ‘못’은 외적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 된다. 그 이유는 ‘-하다’와 결합된 語根인 ‘공부-, 일-, 노래-, 운동-’ 등에 動作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태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모두 否定素 ‘못’과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정소 ‘못’과 결합해서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이 모두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고 단형부정은 쓰이지 않으나 장형부정은 쓰이는 것이 있다.

‘-하다’와 결합된 동사 중에서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이 모두 불가능한 것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5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 A : 이상하다, 괴상하다 등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類
- B : 변하다, 망하다, 실패하다 등 과정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類
- C : 후회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등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가진 동사類
- D : 따분하다, 지루하다, 심심하다, 속상하다 등 내적인 감각이나 지각을 가진 동사類
- E :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등 내적인 요구를 가진 동사類

이와 같은 동사들은 ‘-하다’와 결합된 어근들 즉 ‘이상-, 괴상-, 변-, 망-, 후회-, 걱정-, 염려-, 따분-, 지루-, 필요-...’ 등이 動作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動作動詞가 되지 못하고 상태나 과정동사가 되므로 否定素 ‘못’이 쓰이지 않는다. ‘후회-, 걱정-, 염려-, 따분-, 지루-, 필요-...’ 등 어근의 의미가 內的인 요구나 의지 또는 감각 등을 뜻하므로 外的인 부정소 ‘못’이 쓰일 수 없으며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의 어느 것에도 쓰이지 못한다.

3.2.2. ‘-하다’와 결합된 동사 중에서 부정소 ‘못’과의 결합에서 단형부정문은 쓰이지 못하는데 장형부정문은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

시원하다, 후련하다, 따듯하다, 깨끗하다, 착하다, 부지런하다, 좋아하다, 친절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악하다, 매정하다... 등.

이 동사들에 대한 예문을 살펴 보자.

- (53) a. \*날씨가 못 따뜻하다  
b. 날씨가 따뜻하지 못하다
- (54) a. \*이 옷은 못 깨끗하다  
b. 이 옷은 깨끗하지 못하다
- (55) a. \*그 사람은 못 악하다  
b. 그 사람은 악하지 못하다
- (56) a. \*그 사람은 못 착하다  
b. 그 사람은 착하지 못하다
- (57) a. \*나는 속이 못 후련하다  
b. 나는 속이 후련하지 못하다
- (58) a. \*나는 그를 못 싫어한다  
b. 나는 그를 싫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동사들은 ‘-하다’와 결합된 어근이 ‘시원-, 후련-, 따뜻-, 깨끗-, 착-, 부지런-, 좋아-, 싫어-, 미워-, 악-’ 등 動作性이 없기 때문에 위의 동사들은 동작동사가 될 수 없다. 상태동사나 과정동사는 부정소 ‘못’과 쓰이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위와 같은 동사들이 ‘못’과의 결합에서 장형 부정문이 쓰이는 이유는 3.2.3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3.2.3. 이상과 같은 ‘-하다’ 동사들 이외에 상태동사와 과정동사 중에서 부정소 ‘못’과의 쓰임에서 장형부정문은 가능하나 단형부정문이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다.

알다, 좋다, 느그럽다, 옳다, 바르다, 즐겁다, 빠르다, 모질다…… 등과 파생 접사 ‘-스럽-’, ‘-답-’, ‘-롭-’과 결합하는 상태동사들이 있다. 이런 부류의 동사들은 ‘아니’에 의한 부정도 단형부정은 불가능하고 장형부정만 가능하다. 또한 ‘못’에 의한 부정도 단형부정은 불가능하고 장형부정만 가능하다. 이 경우(1981: 226-229)에 의해서 ‘-답-’에 의한 파생어 중에서 語基가 [-Human]인 경우의 단어들 즉 ‘학생답다, 선생답다, 신사답다. 어른답다’ 등은 ‘못’에 의한 장형부정이 가능하며 語基가 [-Human]인 경우의 단어들 즉 ‘학교답다, 器物답다, 꽃답다, 情답다, 아름답다, 아릿답다’ 등도 ‘못’에 의한 장형부정이 가능하다.

‘-롭-’에 의한 파생어들도 거의 대부분 ‘못’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다. ‘-롭-’에 의한 파생에는 語基가 [+Human]인 파생어는 없으며 모두 語基가 [-Human]인 경우이다. 이때 ‘-스럽-’과 동시에 파생어를 형성하는 단어

들 즉, ‘자비롭다, 경사롭다, 신기롭다, 상서롭다, 영화롭다, 보배롭다, 자유롭다’는 ‘못’에 의한 장형부정문이 가능하나 ‘폐롭다, 수고롭다’는 ‘못’에 의한 장형부정문이 불가능하다. 파생접사 ‘-롭-’에 의해서만 파생어를 이루는 단어들 즉, ‘슬기롭다, 향기롭다, 순조롭다, 利롭다’ 등은 ‘못’에 의한 장형부정문이 가능하나 ‘애처롭다, 가소롭다’ 등은 ‘못’에 의한 부정문이 불가능하다. ‘-스럽-’, ‘-답-’, ‘-롭-’의 세 파생접사에 의한 파생어 중에서 파생접사 ‘-스럽-’에 의한 파생어들이 ‘못’에 의한 부정문이 가장 불규칙적이다. 접사 ‘-스럽-’에 의한 파생어 중에서 語基가 [+Human]인 것으로는 ‘어른스럽다’만이 있으며 語基가 [-Human]인 경우에 접사 ‘-스럽-’에 의한 파생어들 중에서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복스럽다, 자연스럽다 등’만이 ‘못’에 의한 장형부정문이 가능하고 그외의 동사들 즉 ‘원망스럽다, 번덕스럽다, 근심스럽다, 불안스럽다, 걱정스럽다, 이상스럽다, 고생스럽다, 대견스럽다, 한심스럽다...등’은 ‘못’에 의한 장형부정문이 불가능하다. 접사 ‘-롭-’과도 같은 파생어를 이루는 무리들의 語基가 있는데 그러한 語基들과 접사 ‘-스럽-’과의 파생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비스럽다, 경사스럽다, 신기스럽다, 상서스럽다, 영화스럽다, 보배스럽다, 자유스럽다 등’은 ‘못’에 의한 장형부정문이 가능하나 그외의 동사들 즉 ‘폐스럽다, 수고스럽다, 간사스럽다, 창피스럽다’ 등은 ‘못’에 의한 장형부정문이 불가능하다.

‘-하다’ 이외의 동사들로서 否定素 ‘못’과의 쓰임에서 단형부정문의 도출이 막히고 장형부정문만 가능한 것을 김 동식(1980)은 ‘나쁘다, 그르다, 비뚤다, 어둡다 ‘슬프다, 낮다, 느리다, 짧다, 작다...’ 등의 동사들은 부정소 ‘못’과의 쓰임에서 단형부정문 뿐만 아니라 장형부정문도 불가능한 것과 비교하면서 장형부정문이 가능한 동사들에서 부정소 ‘못’은 단순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다는 어떤 선호하는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여 평가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否定素 ‘못’과의 쓰임에서 단형부정문은 도출이 막히고 장형부정문만 도출되는 동사 중에서는 ‘알다, 모질다’ 등이 있어서 이 동사들은 평가 부정에 해당이 되지 못하는 동사들이다. 3.2.2의 ‘-하다’에 속하는 동사들 중 ‘악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등과 같이 [-평가부정]에 속하는 동사들도 否定素 ‘못’과의 쓰임에서 장형부정문은 가능한데 단형부정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꼭 어떤 선호하는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위의 동사들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여 준다.

- (59) a. 그 사람 마음이 안 너그럽다  
b. 그 사람 마음이 너그럽지 않다
- (60) a. \*그 사람 마음이 못 너그럽다  
b. 그 사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
- (61) a. \*그 사람 마음이 못 악하다  
b. 그 사람 마음이 악하지 못하다
- (62) a. \*그는 못 부지런하다  
b. 그는 부지런하지 못하다
- (63) a. \*그것은 못 좋다  
b. 그것은 좋지 못하다
- (64) a. \*그 사람은 못 모질다  
b. 그 사람은 모질지 못하다
- (65) a. \*그 아이는 못 사랑스럽다  
b. 그 아이는 사랑스럽지 못하다

(59~65)에서 否定素 ‘못’은 단형으로 나타날 수 없고 장형으로만 나타난다. 부정소 ‘아니’와 ‘못’에서 ‘아니’는 동작이나 동작성의 결여가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때에 쓰이고, ‘못’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때에 쓰인다. (59~65)의 (b)에서도 동일한 의미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러한 속성의 결여는 그 자체의 내적인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화자의 주관에 달려 있다. 즉 화자의 기준, 기대 표준치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 그러므로 (b)文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 (66) 그렇게 하면 너한테 좋지 못해.

#### IV. 結

否定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의미를 고려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분포가 각기 다른 부정소 ‘아니’와 ‘못’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니’는 거의 모든 서술어에 다 쓰일 수 있으며 특히 동작동사가 쓰인 文에서 동작주가 有情物일 때는 ‘아니’는 動作主의 의지나 의도 등을 나타내는 의도부정(內的인 요인에 의한 부정)을 뜻한다.

(2) ‘아니’가 동작동사와 쓰인 文章에서 동작주가 無情物이거나 有情物의 일부인 경우에는 動作主 자신이 의지나 의도등을 가질 수 없으므로 단순히 행위의 부정만을 뜻하는 단순부정이 된다.

(3) ‘아니’가 거의 모든 동사에 쓰인다고 하였으나 ‘아니’가 쓰이지 못하는 동사들로서 ‘알다, 깨닫다, 깨우치다, 터득하다, 뉘우치다’ 등의 認知動詞類가 있는데 인지동사라는 것은 주체의 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이 행해지는 것으로서 의지나 의도를 뜻하는 ‘아니’ 부정소가 쓰일 수가 없다.

또한 ‘견디다, 참다’ 등의 동사들은 그 동사 자체가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 등이 포함된 동사로서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 등을 뜻하는 ‘아니’ 부정문이 쓰이지 못한다.

(4) ‘못’은 動作動詞와 같이 쓰일 때 의지나 의도 등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려고, -고자’ 등과 같이 쓰일 수 없으며, 의도나 소망을 나타내는 ‘-고 싶다’ 구문에도 쓰이지 못한다. ‘일부러’와 같은 의도를 뜻하는 부사와도 쓰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정소 ‘못’에 의한 부정은 行爲의 결여가 주체의 의지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외적인 요인(가능, 능력, 환경... 등)에 의한 것이다.

‘못’은 상태동사 과정동사와는 쓰이지 못하는데 상태동사, 과정동사와 부정소 ‘못’이 쓰일 수 없는 것은 부정소 ‘못’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못’은 가능이나 능력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라 했는데 상태동사나 과정동사는 가능성이나 능력등을 갖춘 動作主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상태동사, 과정동사 중에서 ‘못’에 의한 부정이 단형부정문은 불가능하나 장형부정문은 가능한 동사들이 있다. 그때의 장형 부정문은 화자의 기준, 기대 표준치에 의한 측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김 동식(1980), 現代國語 否定法の 研究, 국어연구 42  
 남 풍현(1976), 國語否定法の 發達, 문법연구 3  
 성 광수(1971), 부정-변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2  
 송 석중(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박사학위 논문: Indiana Univ.  
 ——(1977), ‘부정의 樣相’의 否定的 樣相, 국어학 5  
 이 경우(1981), 派生語形成에 있어서의 意味變化, 국어교육 39.40 合併號  
 ——(1983), 現代國語 否定法の 一考察, 홍익어문 2

이 홍배 (1970), *On Negation in Korean*, 어학연구 8-2

임 홍빈 (1973), 부정의 양상,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논문집 5

——— (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Chafe, W. 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Press

Bolinger, D. (1977), *Meaning & Form*, New York: Longman

Givó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弘益大 강사)